

## 멕시코 독립의 고유성에 대한 소고: 스페인과의 관계에서 본 성격과 의미를 중심으로\*

임상래\*\*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Lim, Sang-Rae (2020), “A Study on the Peculiarities of Mexican Independence: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Mexican Independence in Regards to Its Relations with Spain”**

### ABSTRACT

Mexican Independence differs in its character from other national independence cases of Latin America. Foremost among the differences, the ideological principle set out in the Plan of Iguala and the Treaty of Cordoba is especially important to understand Mexican Independence. Nueva España was one of Spain's most important colonies, such that Spain's efforts toward a reconquest (otra Reconquista) were vigorous in equal measure to the opposition and resistance of Mexico, striving to consolidate its independence. In this respect, Spain's reconquering attempts and Mexico's responses are also fundamental to apprehend the attainment of Mexican Independence. Obviously Spain was against the Mexican Independence but after a period of time Spain had no choice but to concede recognition, enabling Mexico's own diplomatic relationship to be reorganized and established. According to these observations we can assert Mexican Independence should be explained and understood in its relationship with Spain.

**Key Words:** Mexico, Spain, independence, Nueva España, reconquista, Iguala Plan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81030).

세 분의 심사평이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특히 심사자2의 꼼꼼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 Sang-Rae Lim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srlim@bufs.ac.kr).

## 들어가는 말

독립은 식민지나 속령(屬領)으로 있던 지역이 새로운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다. 식민지의 주민이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식민 본국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인정하였을 때 비로소 독립은 완성된다. 따라서 독립은 항상 국제적 긴장 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독립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와 입장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민 본국 또는 지배국은 식민지의 독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제3국들도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입장이 갈려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따라서 독립의 완성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되며 이런 이유로 독립은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독립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다른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국제적 관점에서 파악되고 고찰되어야 한다.

인류사에서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가는 과정이 순조롭고 간단했던 예는 거의 없었다. 라틴아메리카도, 멕시코도 마찬 가지였다.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된 라틴아메리카는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야만 했는데, 이중 시급한 것이 이들의 독립에 대한 스페인의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는 것이었다. 이를바 스페인의 레콩키스타,<sup>1</sup> 즉 재식민지화를 저지하고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엄중한 과제 중 하나였다.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분리와 자치의 움직임이 확산되자 처음부터 이를 불인정하고 물리적 진압을 개시하였다. 스페인 내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의 확산으로 식민지의 독립은 점차 현실이 되어갔지만 스페인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식민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본국의 국가적 전략과 이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New Spain) 부왕령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sup>2</sup> 이러한 스페인의 재식민지화 시도는

1 ‘레콩키스타’(reconquista)의 사전적 의미는 ‘재정복’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재식민지화로 표기한다.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주 6을 참조하기 바람.

2 독립 이후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가 된 누에바 에스파냐는 식민통치 기간 동안 스페인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식민지였다. 따라서 식민지 중 인구·문화적으로 가장 스페인적인 곳이었고, 그래서 이를 그대로 ‘새로운 스페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곳이었는데, 특히 주요 산품인 ‘은’은 18세기 스페인 제국을 지탱시켜준 중요한 재원이었다. 따라서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은 스페인에게는 다른 어떤 식민지를 잃는 것 보다 더 큰 충격이자 손실이었다(Sánchez 2015, 15).

멕시코 입장에서는 독립 국가의 완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본국의 탄압과 반대는 식민지 독립의 성격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본국-식민지 관계의 맥락에서 누에바 에스파냐의 해방과 멕시코의 독립이 갖는 성격과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멕시코가 군주제로 독립하게 되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스페인이 어떻게 멕시코에서 식민체제 복원을 시도하였는지, 그리고 멕시코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스페인의 재식민지화 정책에 대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스페인인 추방과 같은 식민체제 일소를 위해 취한 국내 정책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누에바 에스파냐의 해방과 멕시코의 독립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여 멕시코 독립을 재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본국-식민지 관계에서 보는 멕시코 독립의 성격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지만 최근 멕시코 역사와 관련하여 몇몇 우수한 연구물이 나왔다는 점은 언급할 만 하다. 이중 최해성은 카디스 체제의 성격과 그것이 멕시코 독립사에서 갖는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박수경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주요 세력들의 정치적 입장이 멕시코 독립국가 수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술하였는바, 본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이 논문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아울러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외 연구, 특히 멕시코에서 발간된 관련 저서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주로 활용하였음도 밝힌다.

## 이팔라 계획(Iguala Plan)의 한계와 중층성

아메리카에서 식민체제에 대한 불만, 특히 크리오요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한 1808년이었다. 급진적 크리오요들은 스페인 제국의 혼란을 틈타 자치를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독립을 요구하였다.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누에바 에스파냐가 아니라 가장 늦게 부왕령이 된 베네수엘라와 리오 텔 라 플라타였다. 카라카스와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수출로 번영하여 무역에서 더 큰 자유를 얻기를 원했고, 또 유럽에서 급진 사상이

유입되어 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더욱 촉진시켰다. 반면 아메리카 식민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누에바 에스파냐와 안데스 중앙 지역은 이러한 상업적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 경제는 수출 지향적 성격이 약해 자유무역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이 지역의 크리오요들은 주로 내부 문제에 집중하였고 외부의 자유사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이 지역은 원주민과 메스티소가 많았기 때문에 스페인의 통제가 없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중 소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들, 유럽에 대한 문화적 동경 등으로 크리오요의 반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약했고, 자치나 독립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Elliott 2003, 131-132).

특히 국왕의 부재 상황 하에서 아메리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누에바 에스파냐는 합의된 의견을 가지지 못했다. 나폴레옹의 침공에 대해 스페인 각 지역은 위원회(Junta Provisional)를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프랑스에 저항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통합하여 최고 위원회를 수립하였다. 아우디엔시아와 페닌슐라레스는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크리오요 중심의 멕시코시티 아윤타미엔토는 왕의 부재로 주권이 각 지역에 반환되었다고 보았고,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자치를 요구하였다(Park 2018, 100). 이들 자치주의자들은 페닌슐라레스와 크리오요 간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식민당국과 페닌슐라레스는 이들을 탄압하였다.

따라서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운동은 일종의 자치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달고 신부의 독립운동처럼 초기 독립운동은 독립 자체를 목표로 하였다기보다는 식민지에서의 ‘나쁜 통치’(mal gobierno)에 반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식민통치의 담당 주체인 부왕청을 향한 것이었고 이는 곧 아메리카에 있는 스페인인들, 즉 페닌슐라레스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Delgado 1990, 16). 돌로레스의 구호 “¡Mueran los gachupines!”(죽어라, 스페인 놈들!)처럼 반대의 대상은 국왕이 아니라 스페인인이었다.

1814년 프랑스의 퇴각으로 페르난도 7세가 왕위에 복귀하였고 아메리카에서 절대주의와 식민체제는 다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과 절대주의 중간에서 자치를 주장했던 누에바 에스파냐 크리오요의 불만이 커졌고 독립운동은 자치에서 독립으로 그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독립 주체의 단위로서 ‘멕시코’라는 말이 등장하였고,<sup>3</sup> 모렐로스가 주도한 아파칭간

(Apaztingán) 헌법은 ‘멕시코 아메리카’(América Mexicana)를 독립의 주체로 선언하였다(Choe 2013, 329; Delgado 1990, 16).

기실 식민통치 기간의 ‘멕시코’는 누에바 에스파냐 식민 행정의 중심지였기에 식민체제 그 자체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식민통치에 불만을 갖거나 반대하는 모든 봉기들은 ‘멕시코’에 대항한 것들이었다. 1800년대 초 독립운동에서 국가로서의 ‘멕시코’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독립운동 내에서도 스스로를 ‘멕시코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왕국’이나 ‘아메리카’에서 ‘멕시코’로 독립 주체의 경계가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독립운동의 성격과 정체성이 더 명확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렐로스의 독립군이 진압된 이후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운동은 일부 지역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였다. 1800년대 초 누에바 에스파냐에는 거의 백 만 명의 크리오요가 있었지만<sup>4</sup> 식민당국과 페닌술라레스는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또 크리오요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나 참여가 미약하였고 일부 크리오요는 식민당국과 암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초기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운동은 페닌술라레스와 스페인 군대뿐만 아니라 크리오요 내부의 보수주의도 극복해야 했다.

상황은 1820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이 해에 스페인에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카디스 헌법이 다시 실행되자 누에바 에스파냐의 대지주, 고위 성직자 그리고 군인 등 상당수의 페닌술라레스는 식민지에서도 이 헌법이 적용될 것을 경계하였다. 기실 카디스 체제의 회복은 초기에는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전반적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식민지의 자유무역, 정치적 자유, 정당한 대표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았고, 스페인 내에서는 교회와 군대의 특권과 충돌하였다. 특히 교회 토지와 십일조에 대한 제한과 종교재판소의 폐지와 같은 반교권적 조치들은 스페인과 아메리카

3 오늘날 ‘멕시코’는 국명과 멕시코시티의 줄임말로 사용되지만 식민시대에는 멕시코시티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였다. 독립운동 초기 국가 명으로 ‘멕시코’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왕국’(reino) 또는 ‘아메리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Park 2018, 98).

4 1804년 누에바 에스파냐에는 유럽인 8만, 크리오요 100만, 원주민 200만, 메스티소와 몰라토 268만, 흑인 1만 명 이하 총 576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Zavala 1990, 14). 또 다른 연구도 1800-1810년 원주민 240만, 메스티소 240만, 크리오요 114만, 스페인인 6만 명 정도로 당시 인구를 추정한다(López Gallo 1988, 49).

에서 가톨릭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왔다(Gómez 2007, 42; McFarlane 2014, 370). 이를 지켜 본 누에바 에스파냐의 주교들과 군인들은 대안으로 자유주의 체제하에 있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자유주의 혁명으로부터 자신들의 귀족정치 체제를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본국에서 독립하여 이른바 ‘페닌술라르 아리스토크래시’(peninsular aristocracy)를 지켜줄 적임자로 이투르비데가 바로 이 때 등장하였다. 그는 크리오요였지만 독립군을 진압한 유능한 군인이었고, 자유주의와도 성향이 먼 사람이었으며, 식민 통치가 누에바 에스파냐의 문화를 창달시켰고 발전을 가져왔다고 믿었던 자였다(Delgado 1990, 17). 페닌술라레스와 일부 부유한 크리오요는 그동안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을 반대해 왔지만 이번에는 마찬가지의 이유로 카디스 헌법과 스페인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독립이 되어도 자신들이 정국을 주도하며 특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누에바 에스파냐의 해방운동은 1821년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페닌술라레스의 지원을 받은 이투르비데가 비센테 게레로와 연합하는 수완을 발휘하였고 1821년 2월 이괄라 계획(Iguala Plan)을 선언하였다. 이괄라 계획은 가톨릭의 인정, 군주제 독립, 모든 계층의 단합을 주 내용으로 하였는데, 종교(religión), 독립(independencia), 연합(unión)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세 가지 보장’(3 garantías) 계획이라고도 한다. 즉, 이괄라 계획은 스페인 왕을 멕시코의 입헌군주로 하고, 가톨릭을 국교로 하며, 교회와 스페인인들의 특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스페인인의 특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게레로의 투쟁 이력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게레로는 결국 이투르비데를 지지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투르비데 역시 게레로를 제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Zavala 1990, 54-55). 게레로 와의 연합으로 이괄라 계획이 성사됨으로서 이투르비데는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한편 스페인 자유주의 정부<sup>5</sup>는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운동에 대해 식민지

<sup>5</sup> 1814년 스페인은 나폴레옹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었고 국왕 페르난도 7세는 왕위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그는 1812년 자유주의 헌법을 채택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연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였고 그 일환으로 1821년 8월 오도노후(Juan O'Donojú)를 협상대표로 멕시코시티에 파견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오도노후를 통해 아메리카의 ‘소요’를 진정시키고 누에바 에스파냐와 스페인의 자유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스페인 제국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게레로와 이투르비데의 연합 독립군은 이미 스페인군을 제압하였기 때문에 오도노후는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오도노후는 이투르비데와 협상하여 이팔라 계획을 인정하고 코르도바 조약(Tratado de Córdoba)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이팔라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스페인 왕실이 멕시코 군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멕시코 의회가 통치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오도노후는 멕시코시티에 남아있던 스페인군의 무장 해체와 철수를 명령하였고 이들은 베라쿠르스의 산 후안 데 올루아(San Juan de Ulúa) 요새로 이동하였다. 1821년 9월 이투르비데와 게레로의 연합군이 멕시코시티에 입성하며 독립 전쟁은 종결되었다(Avila 2010, 393; Delgado 1990, 18).

이팔라 계획에 따라 새로운 군주제 국가를 조직하기 위해 1821년 2월 초대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제헌의회는 크게 공화파와 왕당파로 나뉘었고 왕당파는 다시 부르봉파(스페인 왕가)와 이투르비데파로 나뉘었으며 공화파 보다 왕당파가 많았다. 그러나 스페인은 오도노후가 체결한 코르도바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멕시코 제국의 군주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멕시코 내에서 반 스페인 감정이 고조되어 부르봉주의자들은 쇠퇴하고 이투르비데파가 득세하면서 결국 1822년 5월 이투르비데는 멕시코의 초대 군주 아구스틴 1세로 즉위하게 된다. 즉, 당시 스페인은 새로운 나라를 통치할 기회를 거절하였고, 이 자리는 이투르비데에게 넘어갔으며, 그 결과 멕시코는 군주제로 독립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Bethell 1991, 108; Soto, 68).

그러나 군주 국가 체제는 곧 위기에 직면했다. 이투르비데는 의회에서 열린 황제 대관식에서 했던 선서와는 달리 공화파 등 의회 반대파를 탄압하였고 1822년 8월 결국 의회를 해산시켰다. 국가 재정도 심각한 상태였다. 농업, 광업, 상업이 침체되었고 특히 광업은 식민 말기부터 온 생산이 감소하여

---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였다. 1820년 1월 페르난도는 아메리카의 해방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카디스(Cadiz)에 소집하였으나 군대는 자유주의 헌법의 채택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페르난도 왕은 포로가 되었고 1820년 3월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19세기 중반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페닌슐라레스 자본과 기술의 유출은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해결책은 외국으로부터 채무를 구하는 것이었고 주로 영국 은행으로부터 차관이 유입되었다(Rodríguez 2010, 26). 제국의 권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유럽 왕가를 흥내 내느라 재정은 공무원과 군인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공화주의자뿐만 아니라 이투르비데를 지지하던 세력들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1822년 12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장교 산타 안나는 공화국 수립을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기점으로 반이투르비데 운동이 확산되어 1823년 3월 이투르비데는 왕위에서 물러났다. 1824년 10월, 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연방공화국을 정체로 채택한 멕시코 최초의 공화국 헌법이 공표되고 과달루페 빅토리아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멕시코는 새로운 공화국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의 독립은 라틴아메리카 다른 지역과는 대비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멕시코 독립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괄라 계획과 코르도바 조약에서 폐르난도 7세를 멕시코 제국의 황제로 추대한 것, 스페인이 이를 거부한 것, 그리고 이를 대체하여 이투르비데 군주제로 멕시코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멕시코 독립의 가장 차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괄라 계획의 내용은 멕시코의 온전한 독립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는 페닌슐라레스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줄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기획에 준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이괄라 계획과 코르도바 협정은 페닌슐라레스가 일부 크리오요와 연합하여 스페인 왕을 데려와 구체제를 이식시켜 식민 체제를 연장하려는 기획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크리오요이지만 페닌슐라레스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적 수완까지 뛰어난 이투르비데가 페닌슐라레스와 일부 크리오요와 연합하여 독립을 주도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투르비데와 그가 주도한 이괄라 계획은 당시 표출되고 있던 다양한 이해들을 조정하여 누에바 에스파냐가 더 이상 대립하고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묘안이기도 했다. 이괄라 계획은 독립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스페인 자유주의 헌법을 지지하는 입헌주의자, 공화주의자,

군주제 지지 세력을 연합시켜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를 독립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실제로 10년 동안의 독립 전쟁으로 지치고 피폐해진 멕시코 사정을 감안할 때 이투르비데의 계획은 “Desatemos el nudo sin romperlo”(매듭을 끊지 않고 풀자)라는 모토처럼 전쟁을 피하면서 독립을 달성하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따라서 이팔라 계획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이투르비데는 멕시코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한편 멕시코의 군주제가 오래가지 못한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게레로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투르비데의 이팔라 계획의 세 가지 보장(가톨릭의 인정, 군주제, 스페인인의 특권)은 애당초 지켜지기 힘든 조건들의 조합이었다. 특히 크리오요와 농민은 폐르난도 7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군주가 되어 페닌슐라레스의 특권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체제로 누에바 에스파냐가 독립이 되는 것에 불만이 컸다. 주로 자유주의 지식인, 하급 성직자, 상공인이었던 크리오요와 농민들은 더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군주제는 폐지되고 멕시코는 공화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군주제의 실패는 이투르비데의 운명이기도 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멕시코 독립에서 이투르비데의 역할은 결정적이었고 비록 불완전하긴 했지만 독립을 완수시킨 중결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독립의 영웅 칭호는 그가 아닌 이달고와 모렐로스에게 돌아갔는데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그의 군주제가 단 1년으로 좌절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역시 멕시코 독립의 ‘멕시코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페인의 재식민지화와 멕시코의 대응

1823년 신성동맹이 폐르난도 7세를 지지하고 프랑스가 스페인을 침공하여 자유주의 정부가 붕괴되고 군주제가 복원되었다. 이것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도 충격을 주었다. 자유주의 체제(1820-1823)의 정책과 제도는 무효화되었고 폐르난도 7세는 이른바 레콩키스타, 즉 재식민지화<sup>6</sup>를 강화하였

6 스페인 역사에서 레콩키스타는 세 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첫 번째 레콩키스타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은 1492년 국토회복전쟁이었다. 또 이른바 ‘부르봉 개혁’(1750-1808)을 제2의 레콩키스타라고도 한다. 그리고

기 때문에 멕시코도 이에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스페인의 군사적 재침공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Serrano 2010, 398). 아직까지 쿠바와 멕시코 울루아 요새에 스페인군이 남아있었다. 쿠바의 스페인군은 아메리카 최후의 보루인 쿠바를 방어하고 나아가 아메리카의 재식민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스페인은 멕시코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루아 요새에도 군대를 남겨두었다. 이에 멕시코는 스페인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방도를 찾았다. 쿠바 주둔 스페인군을 견제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쿠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란 콜롬비아와 1825년 군사협정을 체결한 후 그해 11월 멕시코 주둔 스페인군을 격퇴하기 위해 울루아 기지를 공격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군이 승리하여 울루아 요새를 점령하고 멕시코의 모든 영토는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되었다(Colegio de México 1988, 740-741).

울루아 요새를 점령하여 모든 영토가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멕시코가 더 이상 누에바 에스파냐가 아니라는 사실, 즉, 정치적으로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라는 사실 외에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특히 이팔라 계획에 따라 교회와 페닌술라레스의 정치·경제적 기득권은 내부적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공화정이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1826-1827년 사이에 스페인인에 대한 입국 금지령, 공직 금지법, 추방법 등이 연이어 시행되었다. 특히 1827년 호아킨 아레나스(Joaquín Arenas) 반란은<sup>7</sup> 반 스페인 감정을 크게 고조시켰고 그해 5월 스페인인의 공직과 사제직 금지령이 발표되어 페닌술라레스는 공직에서 물러나고 이들 재산의 국외 반출은 금지되었다. 이어서 12월에는 일반 스페인인에 대한 추방법이 발표되었다. 추방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추방법에 따라 총 1,779명이 1828년 멕시코에서 추방되었다. 이들에게는 재산의 일부만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페닌술라레스를 추방하는 것과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저항도 적지 않았지만 이들의 부는 멕시코를 착취하여 형성된 것이기

1820년대 스페인이 아메리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으로 다시 식민지로 돌리려했던 일련의 정책도 레콩키스타라 부른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콩키스타와 구분하기 위해 1820년대의 그것은 ‘재정복’보다는 ‘재식민지화’로 옮기고자 한다.

<sup>7</sup> 호아킨 아레나스 신부는 멕시코의 혼란이 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여겨 1827년 1월 스페인의 페르난도 7세의 왕정 복귀를 주장하며 이에 동조하는 사제들과 반란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신부가 처형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페르난도 7세의 재식민지화에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멕시코 내의 반 스페인 정서를 더욱 격화시켰다(Lim 2015, 90).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더 강했다<sup>8</sup>(León 2010, 18, 22; Sánchez 2010, 87).

재식민지화에 대한 대응으로 스페인적인 것들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정서와 행동이 이어졌다. 1828년 대통령 선거에서 비센테 게레로가 패하고 마누엘 고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봉기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멕시코시티에서도 1828년 11월 아코르다다 봉기(Motín de Acordada)가 발발 했다. 이 시위는 상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인근 파리안(Parian) 시장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사치품을 판매하는 스페인 상인들의 고급 점포들이 약탈되고 방화되었다. 이후 시위는 멕시코에 남아있는 페닌슐라레스를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자는 전국적인 운동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1829년 1월 2차 추방령이 내려지고 스페인인 1,371명이 멕시코에서 추방당했다. 이처럼 추방법은 당시 반서주의 또는 혐서감정(antiespañolismo, antihispanismo antigachupinismo, hispanofobia)의 중요한 배출구가 되었고 스페인인을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Landavazo 2005, 35; Chasteen 2011, 287). 이런 측면에서 추방법은 독립 직후 멕시코의 반서 정서와 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멕시코 민족주의, 나아가 국가 정체성 형성에 매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쿠바에는 아메리카의 재식민지화를 엿보는 스페인군이 남아있었고 멕시코는 이에 대비하여 멕시코 만 연안을 주의 깊게 경비하였다. 예상대로 페르난도 7세는 멕시코 재침공을 명령하였고 1829년 7월 이시드로 바라다스 (Isidro Barradas) 장군이 이끄는 스페인군은 멕시코 침공을 감행하였다. 탐피코에 상륙한 스페인군은 산타 안나에 의해 격퇴되는데, 3,000명의 스페인군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구질서로 돌아가길 열렬히 희망하는 멕시코 군중’이 아니라 악천후와 질병, 그리고 멕시코군의 용맹이었다. 이 전쟁으로 페르난도 7세의 재식민지화 시도는 무위로 끝났고 멕시코에서는 산타 안나가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하였다(Sánchez 2010, 88; Bethell 1991, 113). 반 스페인 감정은 격앙되고 양국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스페인인 추방은 계속되어 1827년부터 1834년까지 총 5차례의 스페인인

<sup>8</sup> 멕시코의 추방법은 예외(멕시코 여성과 결혼했거나, 육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가 많아 추방 예외자(4,500여 명)들이 수두룩했으며 재산 반출을 허용(부분적) 하였다는 측면에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관대한’ 편이었던 입장의 연구도 있다(León 2010, 22).

추방법이 발표되었다. 멕시코의 스페인인 추방은 대외적으로 멕시코-스페인 관계의 악화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찬반 대립으로 정국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다. 주로 보수주의자들이 스페인인 추방을 반대하였다.<sup>9</sup> 스페인인의 추방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예견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괄라 계획과 코르도바 조약에 의해 1821년 당시 멕시코에 체류하고 있던 스페인인에게는 멕시코 국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Lida 2006, 624-625). 따라서 스페인인 추방을 둘러싼 논란과 마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며, 동시에 페닌술라레스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독립 이후에도 멕시코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르도바 조약으로 멕시코의 독립이 실질적으로 선언되었고 또 올루아 요새의 함락으로 군사적으로 멕시코 독립이 완수되었지만 스페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페르난도 7세는 폐위와 복위를 거듭한 집권기 동안 끈질기게 아메리카 식민지를 되찾으려 시도하였다. 분명 아메리카 독립의 징후는 스페인 제국의 해체를 알리는 예고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반복되어 왔던 위기 국면으로 생각하고 아직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페르난도 7세는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스페인 역사에서 이전에도 되풀이되어 나타났던 현상의 일환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즉, 그는 누에바 에스파냐를 포함하는 아메리카의 독립을 부르봉 개혁과<sup>10</sup> 같은 중앙집권화의 압력이 과도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작용의 하나로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반작용은 스페인이 다룰 수 없을 정도로

9 당시 멕시코 정치는 국가 건설의 로드맵을 두고 양분되어 있었다. 이중 식민제체를 지탱했던 교회와 페닌술라레스의 특권과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교회의 권한과 스페인의 유산을 인정하자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스페인인의 추방에 반대하였다. 스페인인 추방법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나왔다. 1827년 3월 할리스코 주의회는 스페인인 추방법을 발표하였는데 연방주의자들은 주정부의 외국인 추방법은 주의회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주로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중앙집권주의자들은 추방의 최종적 결정은 주의회가 아니라 연방의회의 권한이라고 반론하였다(Pani 2003, 362-363).

10 실제로 부르봉 개혁은 1700년대 후반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표류하고 있던 제국의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 왕권을 잡은 부르봉 왕가는 이른바 부르봉 개혁을 통해 제국의 중앙집권주의를 다시 회복하였다. 부르봉 개혁은 식민지를 모국의 경제적 노예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관련 연구자들은 부르봉 왕가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아메리카가 근대적 식민지, 즉 본국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외의 영토로 다시 태어났다고 지적하였다(Elliott 2003, 129).

커서 제국 체제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냈다. 독립의 원심력이 너무 강해서 중앙집권이라는 구심력으로 지탱되어온 스페인 세계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형국이 되어 있었다. 스페인 역사에서 제국 체제에 반기를 드는 지역은 항상 있어왔고 스페인은 이를 다시 정복해 왔다. 이는 스페인 본토와 스페인 제국에서 반복되어 온 역사였다. 따라서 페르난도 7세가 이번에도 레콩키스타로 이를 대처하려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레콩키스타는 스페인 제국사를 이해하는 중심 개념이며 따라서 제국 체제를 구성했던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 대외 관계의 재편과 독립 승인의 완료

독립 직후 멕시코 외교의 첫 번째 과제는 다른 국가들, 특히 서구 열강들로부터 독립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는 차관 도입이나 무역 협정 체결과 같은 신생국으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항상 함께 놓여 있어서 멕시코에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멕시코의 독립이 아메리카 내에서 가장 먼저 인정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란 콜롬비아는 1821년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하였고 이듬해 멕시코도 콜롬비아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이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상호 독립을 인정하고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다. 미국의 승인과 양국 간 수교도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자신과 비슷한 공화국이 수립되는데 지지와 격려를 보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1810년대 미국은 영국 등 다른 서구 열강들과 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대신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주로 집중하였다. 1822년이 되어서야 양국 관계가 진전되어 미국은 포인셋(Poinsett)을 멕시코에 파견하여 정세를 파악하였고 멕시코도 호세 마누엘(José Manuel Zozaya)을 주미공사로 임명하였다. 미국은 1823년 1월 멕시코를 승인하였고 포인셋이 초대 공사로 부임하였다(Cisneros 2012, 30; Elliott 2006, 946).

영국과의 관계도 비교적 순조로웠다. 당시 영국은 라틴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국과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영국은

이미 멕시코와 상당 규모의 교역을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멕시코의 광업, 주로 은 광산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특히 공화정 초기에는 차관을 제공하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입장에서 영국은 미국의 성장과 스페인의 복귀를 견제하기 위한 유용한 카드였다. 또 영국이 프랑스나 신성동맹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 멕시코의 독립을 승인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실제로 영국은 독립 전쟁으로 초래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대가로 아메리카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스페인 정부를 설득하기도 했다. 또 공화정이 들어선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이 멕시코를 승인하기 전에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스페인 정부에 재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은 이는 “본국과 식민지간의 내정”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영국의 중재를 거부하였다 (Bethell 1991, 110; Plascencia 1992).

영국은 멕시코의 국교가 가톨릭이라는 것과 영국에게 통상 우선권을 인정하는 안건 등에서 멕시코와 이견이 있었으나 1825년 4월 6일 양국은 우호·항해·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멕시코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고 영국은 멕시코에 있는 자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수입 관세 문제의 해결을 얻어냈다. 당시 멕시코는 올루아 요새를 점령하고 나아가 스페인의 재식민지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쿠바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영국과의 조약 체결로 멕시코는 쿠바 공격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영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 네덜란드, 프로이센, 러시아와 1827년 우호조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스위스와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와도 조약이 체결되었다(Colegio de México 1988, 740).

그러나 프랑스와의 상황은 달랐다. 프랑스 역시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영국이 라틴아메리카에 경제적인 진출을 강화하자 프랑스는 더 적극적으로 멕시코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멕시코 독립 승인은 영국보다 늦었다. 당시 멕시코인들은 프랑스의 문화와 제품을 크게 선호하였고 프랑스도 1820년대 멕시코에 경제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신성동맹과의 관계로 인해 양국 관계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1825년 양국은 통상 관련 논의를 재개하였다. 1826년 멕시코 선박의 프랑스 입항이 허가되었고 이듬해 멕시코는 통상 분야에서 프랑스를 특혜국으로 대우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으로 비공식적이지만 프랑스는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 국내 사정으로 의회의 비준이 지연되고 1838년 멕시코와 프랑스 간에 ‘파스텔 전쟁’이 발발하여 양국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이듬해 우호조약이 체결되어 멕시코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Cisneros 2012, 35-36).

멕시코 독립에 대한 바티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스페인과 거의 같았다. 그러나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 입장에서 바티칸은 매우 중요했다. 멕시코 공화정 정부는 1824년 교황청에 특사를 파견하여 독립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레오 12세는 이를 거부하였다. 신성동맹의 파트너였던 바티칸은 아메리카를 ‘반란’ 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의 교회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즉, 바티칸은 아메리카에 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다른 종교들이 확산되고 ‘종교적 무질서’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에서 종교적 혼란은 일시적인 것이며 멕시코는 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였지만 끝내 독립은 인정되지 않았다. 1829년 새 교황 비오 8세가 즉위하자 부스타만테 정부는 바티칸과 협상을 재개하였다. 공석이었던 주교의 임명을 요청하였고 바티칸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멕시코의 독립을 승인하지는 않았다. 결국 스페인이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한 1836년이 되어서야 바티칸도 이를 확인하였다(Cisneros 2012, 29).

살펴본 바와 같이 코르도바 협정으로 멕시코의 독립은 선포되었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협정을 체결한 오도노후는 스페인 정부의 공식 대표였지만 스페인 영토를 포기하는 조약에 서명할 권한을 가졌는가에 대한 논란이 코르도바 조약 직후부터 나왔고 결국 스페인 의회는 1822년 2월 12일 코르도바 조약은 불법이며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스페인은 새로운 협상단을 멕시코에 파견하였지만 이투르비데가 퇴위하여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달루페 대통령이 취임하고 멕시코 독립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1823년 9월 울루아 요새에서 전투가 발생하여 협상은 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울루아 요새 함락으로 독립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으나 페르난도 7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식민지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이어감에 따라 멕시코와 스페인간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832년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페르난도 7세가 자신의 동생인 카를로스를 멕시코의 왕으로 앉힐 것을 요구하여 협상은 다시 결렬되었다(Ministerio de Cultura; Colegio de México 1988, 737).

그러나 독립의 승인은 스페인이나 멕시코 모두에게 필요했다. 멕시코는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옛 모국의 독립 인정이 필요했다. 또 산타 안나의 혼연장 담과는 달리 텍사스 독립 전쟁에서 패하여 실추된 국가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도 있었다. 스페인도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미 멕시코를 승인하였기에 멕시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1833년 페르난도가 죽은 후 협상이 재개되었고 1836년 양국 간에 평화·우호·통상 조약(*Tratado de Paz, Amistad y Comercio*)이 체결되어 멕시코의 독립은 공식화되었다. 또 이 조약에서 양국은 멕시코에 남아있는 스페인인의 국적 문제와 스페인 은행과 멕시코 정부 간의 부채 문제 등 몇 가지 숙제를 남겨두긴 했지만 서로를 통상 우선국으로 지정하고 멕시코는 스페인의 최후 식민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공격 시도를 완전히 중단할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Sánchez 2010, 87-88; Bethell 1991, 117).

이처럼 스페인과 유럽,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멕시코의 독립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미국은 비교적 신속하게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프랑스와 바티칸은 이와는 입장이 달랐다. 반면 영국은 멕시코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스페인의 재식민지화는 멕시코의 독립 인정과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어렵고 더디게 하였지만 양국의 필요성으로 결국 멕시코의 독립이 인정되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로써 멕시코 독립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 일단락되었고 멕시코의 국제 관계는 스페인과 유럽 중심의 구체제에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는 새로운 대외 관계로 재편되었다.

## 맺는 말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의 독립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과는 대비되는 성격과 양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독립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괄라 계획과 코르도바 조약이 페르난도 7세를 멕시코 제국의 황제로 추대한 점이나 스페인의 거부로 이를 대체하여 이투르비데 군주제로 독립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와는 크게 대비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멕시코 해방 정국이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신속하게 전환된

것은, 여러 동인이 있지만, 가톨릭과 군주제를 인정하고 여기에 스페인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처음부터 실현되기 힘든 조건을 조합한 이괄라 계획 자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지식인, 하급 성직자, 상공인 등 멕시코의 대다수 크리오요와 농민들은 스페인 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다시 왕이 되고 페닌술라레스의 특권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체제로 누에바 에스파냐가 독립하는 것에 불만이 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신속하게 독립 체제가 전환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괄라 계획은 스페인 입헌주의자, 공화주의자, 군주제 지지자 등 다양한 독립 운동 세력들을 연합시켜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현실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멕시코 독립 운동의 방향이 합의되었다는 측면에서 이괄라 계획은 멕시코 독립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멕시코 독립 정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괄라 계획이 갖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측면들을 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에바 에스파냐는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 중 하나였다. 따라서 스페인의 재식민지화와 이에 대한 저항이 가장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곳이다. 코르도바 조약이 체결되고 올루아 요새가 함락되면서 멕시코의 독립은 현실이 되었지만 스페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페인과 페르난도 7세는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을 스페인의 세계 제국 체제가 이전에도 겪었던 일시적인 위기로 보았고 따라서 18세기 부르봉 개혁에서처럼 아직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기실 스페인 제국사에서 제국 체제에 반기를 드는 지역은 항상 있어왔고 스페인은 이를 다시 정복해 왔었다. 따라서 스페인의 재식민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은 멕시코 독립뿐만 아니라 동시에 스페인 세계 제국 체제의 작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레콩키스타는 스페인 제국사와 라틴아메리카 독립사를 동시에 읽어내는 공약수이며 교집합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멕시코 독립의 승인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이는 이후 멕시코 대외 관계 재편에 영향을 미쳤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미국은 비교적 빠르게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프랑스나 바티칸은 그렇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멕시코의 독립 인정에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교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였다. 본국이었던 스페인은 재식민지

화를 계속 시도하였고 멕시코의 독립을 반대하고 승인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서로의 인정이 필요했고 결국 스페인은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스페인이 멕시코의 독립을 받아들이면서 상징적이지만 멕시코 독립의 국제적 인정이 완료되었고 멕시코의 대외 관계는 이전의 스페인과 유럽 중심에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재편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멕시코의 독립은 일국적 시각이 아닌 국제적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특히 스페인과의 상호 관계의 맥락에서 고찰하여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즉, 멕시코의 독립은 이베리아반도와의 관계 변화를 국내·외적으로 정치하게 살펴볼 때 그 성격과 의의를 더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레콩키스타는 스페인 제국사의 끝과 라틴아메리카 독립사의 앞을 매개하는 중요한 연결이며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능력과 지면의 부족으로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반서 또는 혐서 감정은 스페인의 식민통치와 재식민지화에 대한 아메리카의 집단 인식으로서의 ‘스페인적인 것’(lo español)을 ‘처리’하는 과정, 즉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건설하는데 정치적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또 당시의 복잡한 독립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가 시간 흐름에 따라 서술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분석적 접근이 부족하게된 점도 아쉽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Avila, Alfredo y Luis Juáregui(2010), “La disolución de la monarquía hispánica y el proceso de independencia,” *Nueva Historia General de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pp. 355-396.
- Bethell, Leslie(ed.)(1991), *Historia de América Latina 6. América Latina independiente, 1820-18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steen, John Charles(2011), *Americanos: Latin America's Struggle for Independence*, Goobyung Park et al.(trans.), Seoul: Gil.
- Choe, Hae-Sung(2013), “The Trans-Atlantic Meaning of the Constitution of Cadiz: The Perception and Independence of Nueva España,” *Estudios Hispánicos*, No. 67, pp. 315-337.
- Cisneros, Nidia et al.(2012), *Inmigración y extranjería compilación histórica de la legislación mexicana 1810-1910*, México: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 Delgado, Gloria(1990), *Historia de México: formación del estado moderno*, México: Editorial Alhambra Mexicana.
- El Colegio de México(1988), *Historia General de México*.
- Elliott, John(2003), *The Hispanic World*, Wonjoong Kim(trans.), Seoul: Saemulgyl.
- \_\_\_\_\_ (2006), *Empires of the Atlantic World: Britain and Spain in America 1492-1830*, Wonjoong Kim(trans.), Seoul: Greenbee.
- Gómez, Cristina(2007), “La iglesia católica y la independencia mexicana,” *Matalbán*, No. 40, pp. 29-42.
- Landavazo, Marco Antonio(2005), “Imaginarios encontrados. El antiespañolismo en México en los siglos XIX y XX,” *Tzintzún*, No. 42,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Históricas, Universidad Michoacana, pp. 33-48.
- León, María Graciela(2010), “El conflicto de los españoles ante el proceso de emancipación. Los casos del Río de la Plata y México en los albores del siglo XIX,” *Anuario del Instituto de Historia Argentina*, No. 15,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pp. 15-36.
- Lida, Clara(2006), “Los españoles en el México independiente: 1821-1950. Un estado de la cuestión,” *Historia Mexicana*, Vol. 56, No. 2, El Colegio de México, pp. 613-650.
- Lim, Sangrae(2015), “A Study on the Mexican Freemasonry: Freemasonry and Mexican Independenc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8, No. 1, pp. 75-96.
- López Gallo, Manuel(1988), *Economía y política en la historia de México*, México: El Caballito.
- McFarlane, Anthony(2014), *War and Independence in Spanish America*, New York: Routledge.
- Ministerio de Cultura y Deporte de España, Bicentenario de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 <http://pares.mcu.es/Bicentenarios/portal/cuartaFase.html>

- Pani, Erika(2003), “De coyotes y gallinas: hispanidad, identidad nacional y comunidad política durante la expulsión de españoles,” *Revista de Indias*, Vol. 63, No. 228, pp. 355-374.
- Park, Soo-Kyoung(2018), “From New Spain to Mexico: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Discourses during the War of Independence,”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americanos*, Vol. 29, No. 1, pp. 95-124.
- Plascencia de la Parra, Enrique(1992), “La política española en torno a la Independencia de México. La postura de Francisco Martínez de la Rosa y Lucas Alamán,” *Estudios de Historia Moderna y Contemporánea*, Vol. 15,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Históricas de UNAM, pp. 11-29.
- Rodríguez, Jaime(2010) “«Nosotros somos ahora los verdaderos españoles». El proceso de la independencia de México,” *Historia*, Vol. 34, No. 1,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pp. 13-37.
- Sánchez, Agustín y Pedro Pérez(2010), *Las relaciones entre España y México 1810-2010*, Madrid: Real Instituto Elcano.
- \_\_\_\_\_(2015), *Historia de las relaciones entre España y México, 1821-2014*, Instituto Universitario de Investigación en Estudios Latinoamericanos, Universidad de Alcalá.
- Serrano, José Antonio y Josefina Zoraida(2010), “El nuevo orden, 1821-1848,” *Nueva Historia General de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pp. 397-442.
- Soto, Miguel, “Un camino lleno de dificultades: la diplomacia del México independiente como un legado Español,” <https://archivos.juridicas.unam.mx/www/bjv/libros/7/3101/6.pdf>
- Zavalá, Silvio(1990), *Apuntes de historia nacional 1808-1974*, México: El Colegio Nacional y Fondo de Cultura Económica.

Article Received: 2020. 01. 25.  
Revised: 2020. 04. 23.  
Accepted: 2020. 04. 25.